



정교회 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사순절 제4주일
(성 요한 클리막스 수도자)
성 니키타스 수사고백자
(제8조 + 조과 복음 8)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제8조 부활 찬양송 ----- 82
- 성 요한 클리막스 찬양송 -----
비고정 축일 성가집 46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시기송 ----- 223
- 사도경 : 히브리 6,13~20 --
233, 봉독서 454
- 복음경 : 마르코 9,17~31 - 139
- 성모송 ----- 62

이 성당과 수도원을 이루는 하
느님의 종들에게 자비와 생명, 평
화와 건강, 구원과 보호, 죄의 사함
과 용서가 내리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느님의 거처가 되신 분

성 요한 클리막스 수도자는 열여섯 살 때 하느님
에 대한 사랑을 가득 안고 시나이 산에 올라 자
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느님께 바쳤다. 성 카테리나
수도원에서 19년을 보냈는데, 자기 만족과 신뢰를 내
던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스승 마르티리오스에게 자
신을 온전히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영적 단계를 밟
아갔다. 성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 곧
자기 자신의 의지를 거부하고 영적인 아버지의 가르
침을 따라 그대로 실천하려는 생각으로 충만했다.

그 후에 헤지카스트들의 영적 단련 장소로 거처
를 옮기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불로 끊임없이 타오
르는 열정으로 40년을 보냈다. 성인의 생애는 쉽
없는 기도와 뜨거운 하느님 사랑 그 자체였다. 성인은
모든 덕을 통해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살았
고, 영적 가르침을 기록한 낙원으로 이끄는 사다리
(클리막스)를 집필하였으며, 그 밖에도 많은 저술을
남기고, 선의 충만함에 이르러, 603년 80세의 나이
로 주님의 품에 거룩하게 안식하였다. (위 성화 참조)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주님의 은총으로 거룩하고 축복된 사순 제제를 보내고 있는 이즈음에 가나안 여인의 강인한 믿음을 생각해 본다. 가나안 여인에게서는 호되게 마귀에 들린 딸이 있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치유하려는 간절한 마음에 주님을 찾아와 큰 소리로 외치며 도와 달라고 애걸하였다.(마태오 15,21~28 참조)

이 당시 유대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는 대화도 하는 일이 없었기에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 큰 소리로 여러 번 도움을 외쳤음에도 예수님께서서는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은 계속 큰 소리로 외치는 여인이 성가시어 마음이 쓰였던 터라 주님께 여인을 도와주시어 조용하게 돌려보내자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주님께서서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라고 하시며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말씀하셨다. 또한 가나안 여인에게서는 강아지에 비유하시어 “자녀들(이스라엘 백성)의 빵을 집어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여인의 간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러나 자신을 강아지에 비유하시는 주님의 말씀에도 이 여인은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주님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라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자세로 끈질기게 주님께 도움을 간청하였다.

이러한 가나안 여인의 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서는 감탄하시며 축복을 내려주신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하시자 바로 그 시간에 여인의 딸이 나왔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이 가나안 여인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반드시 딸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용기가 또한 있었기에 주님으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에게도 경제적으로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든 많은 시련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러한 시련을 우리는 어떻게 견디며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며 가나안 여인과 같이 주님을 감탄시키는 믿음과 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해야겠다.

성찬예배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에밀리아노스 수도원장 (아토스 시모노페트라스 수도원 / 1934-2019)

성 찬예배는 그리스도와 약혼하는 것이며, 그분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성찬예배가 거행되는 동안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들여보내십니다.

예배가 끝난 후 우리는 성당에서 나와 우리의 ‘파토스’(악으로 기우는 모든 인간적인 욕망과 걱정), 우리의 죄, 우리의 문제들을 안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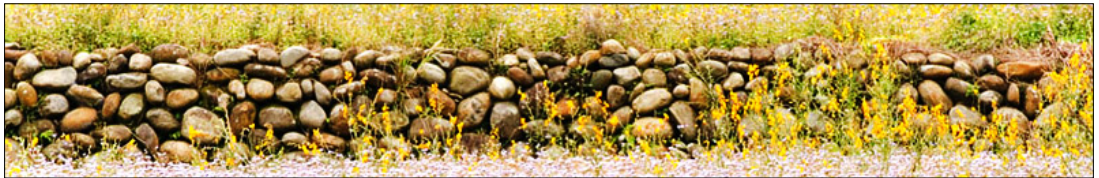
우리는 다시 한번 성찬예배에 갈 것이고, 다시금 그리스도를 받아 모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다시 신화(神化)시키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영적으로 투쟁하며,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 나가며, 주교와 사제가 앞장서고 우리는 뒤에서 따르며, 언젠가 우리는 하늘나라에 다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갈망을 갖고 성찬예배에 참석하는가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확보한 것입니다!



많은 지식과 정말로 알아야 하는 지식

아 르세니오스라고 하는 지식이 풍부한 은둔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식한 그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는 한 수도자에게 가서 영적 삶에 대해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도자는 많이 배우지는 못하였어도 영적 삶에는 아주 깊숙이 들어간 분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다른 수도자들이 아르세니오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도 아는 것이 많은 당신이 어떻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수사에게 가서 그런 문제를 묻는 겁니까?”

아르세니오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공부를 오랫동안 해서 다양한 지식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 수사님이 알고 있는 지식은 못 쌓았습니다. 그 지식은 저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식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그 지식이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이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식이며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지식이 범람하고 있지만, 정작 알아야 하는 지식은 부족합니다.

사순절 예배 안내

- * 화, 목요일 오후 5시
석후대과
- * 4월 6일 (수)
오전 9시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오후 5시 대카논 예배
- * 4월 8일 (금) 오후 6시
성모기립찬양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수요일 오전 9시
금요일 오전 9시



성인의 가르침

성 요한 클리막스
수도자

- 허영의 여러 형태는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이며 사탄의 계략이며 인간의 퇴화이다.
- 예수님께서 마셨던 신 포도주와 쓸개를 기억하라. 그러면 금식하는 것을 더욱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수다란 허무의 옥좌이며 무지의 증거이며 비난의 관문이며 거짓의 시종이다.
- 겸손한 사람들과 친교를 맺으라. 그러면 그들의 품행을 배울 것이다.
- 침묵은 신중함의 어머니이며 낙원의 열쇠다.

소 식

■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기도식

3월 24일(금)에 서울 성 니콜라스 주교좌성당에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로만 카브착 신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 요한 박인곤 보제의 집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모든 군인들과 시민들을 위한 추도 기도를 드리며 전쟁이 즉각 종식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길 기원하였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비롯하여 우크라이나 신자들이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에프로시니 조영순 교우께서 지난 3월 29일(화)에 안식 하셨습니다. 고인은 그동안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생활을 하셨지만 매주 우편으로 배달되는 교회 주보를 받아보는 것이 낙이라고 하실 정도로 믿음이 깊은 분이셨습니다. 고인은 오래전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한국 정교회 유지재단에 기부하시며 성당 건축비로 사용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고인의 영혼에 안식을 주셔서 '고통도 슬픔도 한숨도 없는 광명의 땅, 푸르름의 땅'에서 평화를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 부활절 꽃 봉헌 신청

부활절 에피타피오스 꽃 장식 봉헌을 신청 받습니다. 성당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